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은 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Scalp & Hair Treatment와  
Alopecia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전공

이 진 희

Scalp & Hair Treatment와  
Alopecia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이은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年 5月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전공  
이 진 희

# 인 준 서

이진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감사의 글

저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바쁘게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느끼지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받기보다 주기위해 노력한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저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살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선, 이은혜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알게되고 논문지도를 받게된 건 제 큰 복입니다. 소중한 시간 아낌없이 지도해주신 이은혜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올립니다. 못난 제자이지만 사랑 듬뿍 주셔서 참 든든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논문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언제나 깊은 애정과 따뜻한 말로 지도해주신 안홍석교수님과 배현숙교수님, 이승민교수님! 마음 많이 써주신 김명숙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 옆자리를 언제나 지켜주고 많이 이해해준 이윤수과장님, 고세영차장님..고맙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논문을 마치며 감사함을 전달해야할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존경하는 리순화교수님, 조지훈교수님, 정훈교수님, 탁희정회장님, 이재천회장님, 한운주회장님, 조판래회장님, 이재순교수님, 채선숙교수님, 광인실교수님, 심선녀교수님, 김춘희교수님, 김연숙교수님, 이승미교수님, 김영은교수님, 장병수교수님, 왕혜자교수님, 정영태교수님, 양일훈교수님, 함인주교수님!

큰 도움주신 최성임교수님, 주은령선배님, 이화정선배님!

마음만큼 연락자주 하지못한 늘 미안한 우리 성신패밀리..

화정, 지혜, 수진, 윤미언니!

부족한 저를 잘 챙겨준 재은, 정은언니, 새롬, 유민이.  
그리고 뵙고싶은 이현숙선생님, 정향옥선생님.  
고마운 한덕용선생님, 유민희대표님, 탁미숙대표님, 박성설대표님, 박지현대리  
님, 성신 조교선생님.

저의 모교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좋은 가르침 주셨던 이은숙교수님, 최도점교  
수님, 이진태교수님, 안봉전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의 큰 사랑과 관심에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  
다. 제 소중한 모든 인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을 넓게 보고 밝게 보는, 노력하는 이진희가 되겠습니다.  
제 삶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씩 노력한다는 것은 저에게 커다란 기쁨입니다.  
내 인생을 소중히 가꾸겠습니다.

저의 영원한 협력자이자 저를 제일 자랑스러워하시는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할머니님 두 분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  
사와 사랑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늘 큰 가르침주시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마음 많이  
써주신..아낌없는 배려로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었던 KAT한국두피모발관리사  
협회 김영배 이사장님과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이진희올림

## 논문개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20~40대의 여성층의 탈모현상은 유전적인 요인 외에 후천적인 요인인 서구화된 식습관과 사회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및 잘못된 다이어트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피모발관리와 탈모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두피모발 및 탈모에 관한 전문제품의 개발과 더불어 스칼프클리닉(Scalp Clinic)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태에 관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행동분석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피, 모발 관리와 탈모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800부를 배포. 회수하여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759부를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빈도(Frequency), 백분율(Percent), 평균(Average), 표준 오차(Standard Error), 교차 분석(Chi-Square)을 통해 처리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경우 흡연율이 다소 있는 것( $p < 0.05$ )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수면시간이 6.7시간으로 평균 수면시간인 8시간보다 낮게 측정되어서 불면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응답자들이 심리적 요인과 생활습관 순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의 경우 하루 평균 2.3끼를 주로 자극적이고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를 하고( $p < 0.05$ ) 1주일에 패스트푸드를 2회 정도 먹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p < 0.05$ ) 영양불균형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운

동에 있어서 1주일 평균 1.5회 평균 31.8분으로 매우 부족했으며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탈모와 관련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성격, 스트레스, 월경 등은 모두 보통의 상태를 나타냈으나 스트레스의 큰 원인으로 진로 및 취업 문제를 꼽아서 사회적 인 양상을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구매행태와 인식 조사에 있어서 정보수집과 제품구입은 주로 미용실을 차지하고 있고 모발화장품은 주로 사용하되 영양공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번거롭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제품에 있어서는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항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반 샴푸를 사용하고 1일 1회로 머리를 씻으며 충분히 세정을 하고 1년 평균 퍼머 1.74회 염색 2.93회를 사용하며 트리트먼트와 린스 컨디셔너등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피 관련 시술의 인식 조사에서 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험을 받지 않았으며 경험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주로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고가의 관리비용이 매우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두피 관련 시술에 대한 필요성과 미래의사에 대해서는 주로 보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넷째, 탈모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는 청결과 건강상태에 대하여 평균이상을 나타냈으며 화학시술에 대한 탈모관련성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다. 기타 생활습관, 자가 관리 및 전문 미용기술 및 적절한 운동의 필요성 등이 탈모와 관련이 있음을 대부분의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응답자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다.

다섯째, 탈모에 대한 인식 조사로서 탈모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예상 탈모 량도 평균 수치로 나타났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스트레스가 압도적이었으며 탈모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주로 이미지와 자신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하였고 탈모에 있어서는 올바른 세발 및 두피 관리가 크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탈모의 가장 큰 원인에는 스트레스였으며 탈모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두피관리, 휴식수면, 스트레스 해소 등 평소의 생활 습관과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탈모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이고 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현재 두피모발 및 탈모관련 제품의 인식과 이용행태의 경우 사실상 대중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높은 비용과 전문성의 결여를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두피모발 및 탈모관리 기술의 전문성과 대중화를 위한 산. 학. 연 공동체재의 정책적 지원방안과 경제적비용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두피모발관련 산업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발전과 외부적인 홍보방안을 병행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피모발관리 및 탈모관리의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두피모발관리 및 탈모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프로그램개발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목 차

감사의 글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문제 .....	4
II. 이론적 배경 .....	5
1. 두피 .....	5
1) 두피(scalp)의 정의 .....	5
2) 두피(scalp)의 유형과 관리방법 .....	5
2. 모발 .....	10
1) 모발의 정의 .....	10
2) 모발의 특성 .....	10
3. 탈모 .....	11
1) 탈모의 정의 .....	11
2) 남성형 탈모 .....	12
3) 여성형 탈모 .....	13
III. 연구방법 .....	17
1.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	17
2. 조사 내용 및 방법 .....	17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18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9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 .....	1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2) 흡연, 음주요인에 따른 분석 .....	24
3) 식생활 분석 .....	26
4) 식습관과 패스트푸드 섭취에 따른 분석 .....	28
5) 탈모관련 생활습관 .....	31
6) 건강 및 심리상태 .....	32
2. 모발제품의 구매행태 및 사용실태 .....	34
1) 구매행태 및 인식조사 .....	34
2) 두피모발제품 사용 및 행태 .....	37
3) 퍼머, 염색 시술 및 트리트먼트의 사용행태 .....	39
4) 두피관련 시술 인식 .....	40
5) 두피관련 시술의 개선점과 필요성 .....	43
3. 두피모발관련 탈모지식 .....	45
1) 탈모에 대한 기초지식 .....	45
2) 탈모에 대한 기초지식 평균 분석 .....	49
4. 탈모에 대한 인식 .....	50
1) 두피상태와 탈모인식 .....	50
2) 탈모의 요인인식과 개선방법 .....	53
V. 결론 및 제언 .....	56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1
표 2. 흡연, 음주 교차 분석 .....	25
표 3. 조사대상자의 식생활 분석 .....	27
표 4. 식습관, 패스트푸드 섭취량 교차분석 .....	29
표 5. 탈모생활 습관 교차분석 .....	31
표 6. 건강 및 심리상태 .....	33
표 7. 모발제품의 구매행태 및 인식조사.....	36
표 8. 두피모발제품 사용 및 행태 .....	38
표 9. 퍼머, 염색 시술 및 트리트먼트의 사용행태 .....	40
표 10. 두피관련 시술의 만족도 .....	42
표 11. 두피관련 시술의 개선점과 필요성 .....	44
표 12. 탈모에 대한 기초 지식 .....	46
표 13. 탈모에 대한 기초 지식 평균 .....	49
표 14. 두피상태와 탈모의 인식 .....	51
표 15. 탈모의 요인인식과 개선방법 .....	54

## 그 립 목 차

그림 1. 조사대상자의 연령정도 .....	22
그림 2. 조사대상자의 흡연정도 .....	22
그림 3. 조사대상자의 음주정도 .....	23
그림 4. 조사대상자의 수면 시간정도.....	23
그림 5. 나이에 따른 흡연율 교차분석 .....	25
그림 6. 나이에 따른 음주율 교차분석 .....	26
그림 7.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	28
그림 8. 식습관 교차분석 .....	30
그림 9. 패스트푸드 섭취율 교차분석 .....	30
그림 10. 탈모생활 습관 교차분석 .....	32
그림 11. 탈모와 두피 청결 .....	47
그림 12. 탈모와 모발제품 .....	47
그림 13. 탈모와 스트레스 .....	48
그림 14. 조사대상자의 두피상태 .....	52
그림 15. 조사대상자의 두피고민 .....	52
그림 16. 탈모요인에 대한 인식 .....	55
그림 17. 탈모의 개선방법 .....	55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각종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해 현대 문명병이라는 새로운 질병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은 건강하고 젊은 삶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부와 건강하고 빛나는 헤어스타일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 문명의 발전과 여건 속에서 사회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환경오염과 과도한 스트레스,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우리 몸의 불균형에서 오는 두피, 모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위수영, 2008). 일반적으로 20~40대의 여성들은 두피, 모발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두피, 모발관리의 건강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특히, 영양섭취 및 두피, 모발건강을 위한 실천행위 및 제품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두피, 모발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여성들은 두피, 모발관리 자가진단에서도 안전한 것을 알 수 있고, 모발건강 실천행위를 잘하는 여성들이 건강한 두피, 모발을 가지고 있음이 조사되었다(정숙희 등, 2006). 또한 2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두피, 모발관리를 시작하는 이유는 외모에 대한 고민과 취업 등의 이유로 펴, 염색 등의 모발 시술빈도가 많아지며 스트레스 등 후천적인 영향으로 탈모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20대 이후 여성의 건

강한 생활습관 확립과 모발건강관리는 중. 장년 이후의 건강한 모발의 근원이 되므로 두피, 모발관리의 실천이 요구된다.

두피, 모발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두피·모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이방실, 2009),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전정애, 2008) 전공지식과 관심이 풍부한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두피, 모발관리에 대한 태도 및 실천행위에 대한 연구 자료에서 두피, 모발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 실천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탈모의 경우 모발 관리업체인 파워모코리아에 따르면(2007) 탈모 경험자 총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모가 시작된 시점을 묻는 질문”에 20대가 61명으로 54%를 차지했다. 10대도 23명으로 무려 21%를 차지, 대부분 10대와 20대에 초기 탈모가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17명(15%), 40대 7명(6%), 50대 이상 3명(3%)이었으며, 10세 이전 어린이도 1명(1%) 포함되었다. 예전에는 40~50대의 남성의 고민거리로만 여겨왔지만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 탈모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탈모가 증가하는 것도 최근의 추세이다. 다이어트와 영양부족 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각종 호르몬 분비에 이상 때문이라고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젊은 층과 여성 탈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탈모가 유전적인 요인 외에 후천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조남춘, 2005). 이와 같이 탈모는 크게 유전적 영향, 환경적 영향, 스트레스 등 선천적인 영향과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이나 스트레스 등 후천적 영향으로 인한 탈모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윤진희, 2006).

그러므로 대중들의 인식 속에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의 인식과 개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모발제품과 크리닉센터들이 생겨나고 두피와 모발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고객을 관리해야 할 전문분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두피, 모발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의 경우, 남성 중심으로 조사 분석되어, 두피와 모발관련 인식 및 실태에 대한 보고들이 많았으며, 탈모에 대한 논문들 역시 남성들의 탈모와 스트레스, 의학적으로는 모발 이식술이나 약품 치료 효과에 대한 보고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40대 여성들의 두피, 모발 및 탈모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천방법을 인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탈모인의 개인적 특성이나 탈모 양상, 스트레스, 두피 상태와 음주, 흡연 여부 등 탈모증 상관 변인에 관한 분석을 통해 탈모 원인적 변인들을 탐색하여, 이를 토대로 탈모 예방지침과 두피모발관리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대~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생활습관, 건강 및 심리상태, 구매행태 및 사용실태, 두피관련 기초지식, 탈모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여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본다.
- 2)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 제품의 구매행태 및 사용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 3) 두피, 모발 및 탈모관련 기초지식에 대해 알아본다.
- 4) 탈모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본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두피

#### 1) 두피(Scalp)의 정의

인체를 덮고 있는 피부조직은 각 부위에 따라 얼굴, 손등, 손바닥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되어지며, 그 중 두부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의 피부조직을 ‘두피’라 한다(송지형 등, 2007). 두피는 모근부와 한선(소한선)이 발달되어 있으며, 뇌를 외부의 충격이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고, 인체의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모발의 생성과도 깊이 관여하는 부분이다. 두피조직에는 약 8만 여개 정도의 무수히 많은 모공이 존재하고 있다. 각 모공에는 모발이 적게는 1본에서 많게는 4본정도가 존재하고 이를 ‘모낭단위’라고 부른다. 무수히 많은 모공에 존재하는 모발은 두피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조성일 등, 2006).

#### 2) 두피(Scalp)의 유형과 관리방법

두피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두피의 색도, 두피의 수분 상태, 두피 표면 각질의 주기 변화, 피지의 분비량, 두피의 혈액순환 상태, 두피 염증 유무, 모발의 개체 수, 모발의 밀도, 모발소실정도, 휴지기 모발의 수 등이 있다. 두피의 유형과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정상 두피 (Normal scalp)

1개의 모공에 서로 다른 모주기를 가진 2~3개의 모발이 자리 잡고 있다. 두피가 깨끗하고 모공이 각질과 피지로 막혀 있지 않으며 두피색이 맑고 투명하며 윤기가 있는 것이 정상두피의 특징이다(곽형심 등, 2002). 관리방법으로는 현재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모발의 건조화 방지를 위해 에센스로 관리한다.

### (2) 건성 두피 (Dry scalp)

건성두피의 발생원인은 크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요인의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이상, 비타민 섭취이상과 같은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외적요인으로는 잦은 드라이, 화학적 시술 및 난방, 잘못된 샴푸제의 선택 등이 있다. 건성두피의 주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는 수분의 과다 유실과 피지분비 장애 등으로 인해 두피 당김 현상이나 가려움 현상을 동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두피 자극에 의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김영숙, 2007). 40대의 두피 피지분비상태를 살펴보면 호르몬의 변화 및 신진대사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전체 40대의 65%정도에서 건성화를 나타내고 있다(조성일 등, 2007). 건성두피의 관리방법으로는 각질 제거, 막힌 모공의 세척, 혈행 촉진에 중점을 두고 깨끗해진 두피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 또한 강한 비누나 광물성 오일, 또는 기름기가 많은 제품과 강한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로션은 피한다. 또한 건성 샴푸로 저녁에 샴푸하고 드라이어로 말릴 경우 찬바람이 좋으며 1일 1회의 두피와 어깨 마사지는 혈액을 원활하게 해준다. 유 수분의 공급을 통해

각질세포들을 진정시켜 유지 막을 형성하여 외부 자극으로 부터의 방어 능력을 회복시킨다. 두피가 민감해지지 않도록 샴푸 후에 두피용 토닉 사용으로 두피를 진정시켜 준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3) 지성두피 (Oily scalp)

두피에 피지 분비가 과도해 기름기가 흐르고 비듬과 각질이 피지와 엉켜 있다. 한 모공에 모발이 1-2개 정도 있으며 노화 각질과 피지 분비물이 모공을 막고 있어 피지가 모낭 안에 머물러 염증을 유발하거나 모근에 탈모의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으며(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피지분비가 과잉 되어 세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발 성장을 방해하며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강갑연 등, 2003). 지성두피의 관리방법으로는 과도한 유분은 피지선의 과도한 활동에 의해 기인되기 때문에 두피 세정과 피지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고 모공이 막혀 있어 세포의 호흡작용에 이상이 생겨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피지 응고물 제거를 통하여 모공을 열어준다. 그리고 두피 마사지를 통해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마사지한다. 피지의 pH를 되찾아 두피에 대한 보호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 염증이 있을 경우 치료 후 관리에 들어간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4) 예민성 두피(Sensitive scalp)

붉은색을 띠며 두피 표면에 홍반, 염증 및 가느다란 싹뿔줄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모발은 매우 가늘어져 있는 상태이고 모세혈관이 확장

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약한 자극에도 따갑거나 발열현상이 나타나 민감하게 반응한다. 심한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루성두피로 발전하기도 한다. 예민성두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화학적 시술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피로 등 선천적 원인과 건성두피를 오래 방치했을 경우, 잦은 펴머, 염색 및 탈색 등의 화학적 시술, 자극이 강한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신체 리듬이나 균형이 깨졌을 때, 그리고 생리 전, 후나 출산 후에 두피가 예민해 질 수 있다(윤천성, 2004). 예민한 두피의 관리방법으로는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고 두피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두피를 민감하게 만드는 내부적 외부적 환경요인들을 제거해 준다. 또한 스트레스 환경을 개선하고 두피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도록 뒷목을 잘 풀어 준다. 화학적 시술을 삼가하고, 스타일링 제품 사용도 자제하며, 저 자극 천연성분의 샴푸 사용으로 두피를 정상화시켜준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5) 복합성 두피

두피는 지성이나 모발은 건성인 상태를 말하며, 피지선의 활동은 지성두피를 형성하나 잦은 화학 시술로 인해 모발은 건성화 되어 있다. 두피가 단단해지면서 모근에 압박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모발에 영양공급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과도한 피지분비와 호르몬의 불균형, 스트레스, 과로에 의한 두피의 긴장과 혈액순환 장애, 영양공급 부족 및 유전적인 요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대한미용교수협의회, 2007). 복합성 두피의 관리방법으로는 두피 마사지로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두피의 유

분 제거를 위한 샴푸제를 사용하며, 모발영양공급을 위해 단백질 성분이 코팅된 헤어 컨디셔너를 사용한다. 즉, 샴푸를 두피와 모발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6) 비듬성두피

비듬균(*pitryosporum ovale*), 호르몬의 불균형(남성 호르몬), 유전적 요인, 신경 이완제를 복용했을 때, 피지선의 과다분비, 각질주기의 이상,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불충분한 수면을 취한 경우,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땀 분비와 이것을 적절히 제거하지 않은 경우, 머리를 감고 완전히 헹구지 않은 경우, 잘못된 헤어케어 제품의 사용 등이 원인이 된다(대한미용교수협의회, 2007). 비듬성두피의 관리방법으로는 비듬균의 이상증식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비듬이 쌓여 가려움증을 동반하는데, 비듬의 형태에 따라 지성과 건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두피를 청결히 해주고 비듬 전용 샴푸제를 사용하고 비듬의 제거를 위한 스케일링 제품을 사용한다. 그리고 수분과 영양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사지를 병행한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7) 지루성두피

피지선의 기능이 왕성하여 피지의 분비가 많아 염증과 지성 비듬이 자주 생긴다. 외관상 예민성두피와 지성두피의 혼합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두피 염증으로 인해 두피가 붉어지고, 모낭 주위가 붉게 부풀어 오르거나 굽고, 가려우며, 염증이 심한 경우 머리카락 주위의 임파선이 부어오르기도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화학적 시술이 주원인이다. 얼굴, 귀, 가슴 등이 붉

어지고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 치료를 하더라도 커져 있는 피지선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재발 가능성이 있다(박영숙 등, 2006). 지루성두피의 관리방법으로는 긁어 상처를 내게 되면 모낭염이 더욱 더 악화되므로 주의하고 염증이 더 퍼지지 않도록 살균 세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극적인 샴푸제 사용은 피지선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두피에 자극을 최소화하고 두피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폐물 및 독소의 배출과 피지선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다. 화학적 시술이나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지루성 두피는 피부염에 속하므로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2. 모발

### 1) 모발의 정의

모발은 손바닥, 발바닥, 입술, 유두를 제외한 전신에 있는 일종의 피부 부속기관이다. 즉 모발은 피부의 각질층이 변화해서 생긴 섬유성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구성된 죽은 세포를 말하며 촉각이나 통각을 전달하고 외부의 화학적, 기계적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관이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2) 모발의 특성

모발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특수한 각화단백질의 한 형태로서 두부를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보호해주며 외부 충격이나 자극에 대해 완충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두피의 손상을 막아준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그 외 장식적인 측면도 있어서 개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표피는 3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모표피는 기름과 친화력이 강한 친유성으로서 물과 약제의 침투와 작용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외적인 영향으로부터 모피 질을 보호하고 있는데 미용시술, 자외선, 마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모표피에 자극을 주면 모피질의 손상을 야기한다. 우리 신체 속에 분비되는 호르몬 중 특히 모발과 관계있는 것이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피질, 성선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이 가운데서 여성호르몬은 모발성장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고, 남성호르몬은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또한 자율신경이 우리 체내의 심장기능을 조절하는데 이것이 스트레스로 깨지게 되면 자율신경을 긴장시켜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 모발의 뿌리인 모모는 모세혈관과 자율신경 지배함에 있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모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발건강은 그 사람의 전체적 건강상태를 드러내며, 스타일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3. 탈모

#### 1) 탈모의 정의

사람의 모발의 동물의 털과는 달리 독립적인 모주기가 있어, 모발이 빠지더라도 일정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발은 하루에 40-100개

정도 탈락하며, 또한 탈락하는 만큼 대체 모발이 생성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내적, 외적 이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1일 탈모량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모발의 성장기가 감소하여 모발이 연모화가 진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탈모란, 단순히 두피로부터 모발이 탈락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비정상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모발의 굵기가 점차 가늘어지면서 성장주기가 짧아져 두피에 존재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정상적으로 털이 많이 빠지거나 모발이 있어야 할 부위에 없거나 연모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송지형 등, 2010).

## 2) 남성형 탈모

### (1) 남성형 탈모의 원인

탈모증이 되는 유전자를 부모 모두에게서 물려받았을 때는 거의 100%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아버지가 모발의 유전자 가운데 대머리의 유전자를 한 개 지니고 있을 때의 아들은 대머리가 될 확률이 50%가 되며, 어머니까지 대머리의 유전인자를 지니고 있게 되면 그 확률은 75% 이다 (이은혜 등, 2008).

유전적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남성 호르몬이 없다면 탈모가 되지 않는다. 사춘기 때 거세를 당할 경우(환관, 카스트라토)은 대머리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에게 남성 호르몬을 주사하면 대머리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 시켜서 탈모를 악화 시킨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할수록 탈모증세도 그만큼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식생활부분에서

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스트레스와 더불어 탈모의 2차적인 요인이 된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탈모를 악화시키며 잦은 퍼머넨트나 염색, 헤어드라이 등으로 탈모가 진행된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2) 남성형 탈모증의 진단

탈모는 대부분 중장년층에 발생하지만 남성형 탈모증은 체내에 남성호르몬이 증가하는 사춘기 이후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

탈모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말하자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지만 과학적으로 본다면 점차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모발의 성장기간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모발성장기(3년~6년)가 짧아짐에 따라 짧고 가는 머리카락이 주로 빠지면서 그 양도 많아지게 된다(이은혜 등, 2008).

초기 탈모를 진단할 때에는 빠진 머리카락의 양만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에 비해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어 졌는지 확인하고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모발이 가라앉는 느낌이 나는지 두피가 점차 보이기 시작하면서 뻣뻣한 느낌이 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머리를 감을 때 주로 가는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50개 이상 보이는지 하는 사항이 초기 탈모를 진단하는데 더욱 중요하다. 물론 탈모가 진행되어 M자 부분이나 두정부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없어진다면 남성형 탈모로 진단할 수 있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3) 남성형 탈모의 치료법

미녹시딜 제제는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약물로 이 약제를 사용하면 모

발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1997년 미국 FDA의 인증으로 남성형 탈모 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여성과 어린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임신부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서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피나스테라이드(프로페시아)가 있으며 레틴A(티레이노인)은 미녹시딜과 병행 시 더 짙은 모발 성장을 유도 한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광선치료의 경우 인체에 유효한 광선을 이용하여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모발이식의 경우 인조 모발 이식이나 자가 모발 이식의 방법이 있다.

### 3) 여성형 탈모

#### (1) 여성형 탈모의 원인

머리가 빠지는 여성들이 전체 탈모 환자의 약 40%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성형 탈모는 머리가 벗겨지는 형태가 남성들에게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며 여성 탈모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머리의 뒷부분과 옆은 남겨두고 머리가 벗겨지는 형태를 보이는 남자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들은 보통 머리카락이 머리 전체에서 일정하게 빠진다. 전반적으로 머리가 빠지면서 머릿결이 가늘어지는 탈모는 유전적인 대머리보다 원인이 다양하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은혜 등, 2008).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스트레스에 무척 민감한 경우에 발생하는 원형탈모 증과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일시적으로 빠졌던 머리가 늦게 나는 경우, 다이어트에 의해 영양분 부족으로 모발이 부실해지거나 빈혈이나 난소낭종같은 질환에 의한 탈모가 상대적으로 많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또한 여성 탈모의 대표적인 질환인 휴지기 탈모로 분만 후 2~3개월이 지나면

급속하게 머리숱이 줄어들어는 경우이다. 분만이라는 스트레스가 머리카락의 많은 수를 빠질 머리인 휴지기로 변하게 하여 탈모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6개월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 외의 원인으로서는 열병이나 수술, 교통사고, 심한 스트레스도 휴지기 탈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 (2) 여성형 탈모증의 진단

가장 큰 이유는 남자들에게서 남성호르몬인 안드로젠,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훨씬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남성형 탈모가 여성형 탈모보다 더 심각하다. 남성 호르몬은 남성의 성적 성향을 결정짓게 되며, 테스토스테론은 5-알파 리덕타제라는 효소에 의해 DHT로 바뀌는데 이 효소는 주로 머리가 벗겨지는 부분에 많이 있다. 두피 전체를 볼 때 여성의 경우 이 효소의 양이 남성의 반에 불과하며 여성들은 DHT의 생성을 방해하는 Aromatase라는 효소의 수치가 머리 앞부분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탈모는 없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2011). 또한 산후 탈모는 임신을 하면 태아의 영양공급을 위해 전신 쇠약증세가 나타나고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로 생긴다. 주로 출산 후 2~5개월 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위치는 머리 앞 쪽 1/3 부분에서 진행된다. 또한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모낭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머리카락이 휴지기로 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임신 전에는 하루 50~100개 정도 정상적으로 빠지던 머리카락이 임신 기간에는 오히려 하루 5~10개만 빠져 머리숱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출산 후에는 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들어 모발이 한꺼번에 휴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일시적인 탈모 현상이 나타난다. 그 후 약 3~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나 산후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탈모가 지속되어 영구 탈모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3) 여성형 탈모의 치료법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고 탈모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탈모의 비율은 전체의 25~45% 정도 된다. 영양 상태를 높이기 위해 설퍼 아미노산의 하나인 메티오닌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해 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우선 모발의 증가보다는 현상태에서 악화되는걸 막는 데 목표를 두도록 한다. 또한 무리한 다이어트와 피임약의 남용을 피하며 충분한 영양섭취와 심리적인 안정은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며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숫자를 스스로 파악하여 가발 착용이나 수술등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한다(이은혜 등, 2008). 또한 비유전적인 요소들은 원인이 개선되면 모발의 재생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의 방향도 원인제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탈모 때문에 머리를 이틀에 한번 감을 필요는 없고 매일 감아도 무방하며 일반적인 퍼머나 염색도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의 탈모에서는 이식한 모발을 어떻게 스타일링 할 것인지 고려하여 이식부위와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환자 역시 과도한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주로 이식되는 부위는 가르마 주위나 전두부의 모발선 뒤쪽에 국한하여 이식하게 되며 결국 이 부분의 이식한 모발이 점차 자라서 탈모된 나머지 부분을 감출 수 있다(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2011).

### Ⅲ.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대~40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두피, 모발 및 탈모 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지역의 대학 및 미용실, 관리실 등을 방문하여 사전에 조사 안내 및 비밀 보장 준수(통계법 제13조, 14조) 등을 설명하여 관계자와의 사전 동의를 거친 뒤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양식은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800부를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자료 정리(Data Cleaning)를 거쳐서 무응답 또는 불성실 등 비정상적인 41부를 제외하여 75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율은 94%이다.

####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김미영(2009), 이방실(2009), 하성이(2006) 등의 선행연구의 설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사의 일반사항 3문항, 생활습관 14문항, 건강상태 4문항, 구매행태 및 사용실태 16문항,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의 경험 6문항,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의 만족도 및 개선방안 7문항,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에 관련 기초지식 8문항, 탈모에 대한 인식 9문항 등 8개영역 총 6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 건강 및 심리상태, 구매행태 및 사용실태, 두피관련 기초지식, 탈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Frequency), 백분율(Percent), 평균(Average), 표준 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내고 일부 변수에 대해서 교차 분석(Chi-Square)으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 1)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759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29세 561명(73.9%) 등 73%를 차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평균 연령대는 25.2세의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용돈 및 혼인에 대한 변수도 이와 맞게 나타났다. 용돈의 경우 주로 30대 미만의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30~50만원 266명(35%), 50~100만원 210명(27.7%)로 집중되어 있고 평균 53.5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표준오차가 1.845로 비교적 높아서 용돈에 대한 격차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대 계층에서도 직장인들이 있어서 학생층과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미혼율의 경우 606명(79.8%)로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안 피는 경우가 566명(74.6%)로 나타났으나 피는 경우가 193명(25.4%)로 나타나 높은 수치를 보였고 피는 경우 하루 평균 2.49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영(2009), 이경란(2008), 지경숙(2008)의 연구에서 비흡연자가 60~70%를 차지한 보고와 본 연구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음주의 경우 1주일을 단위로 조사하였는데 0회 283명(37.3%)로 1회 이상이 476명(62.7%)를 나타나고 평균 1.76회의 음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1주일에 최소 1~2회 정도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경란(2008), 지경숙(2008)

의 연구에서 1주일에 1~2회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연구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수면시간의 경우 6~9시간이 588명(77.5%)를 나타냈으나, 평균 6.771시간을 수면한다는 것으로 볼 때 인간의 정상적인 수면시간인 8~10시간보다 1.3시간 낮아서 낮은 수면률을 보이고 있다. 지경숙(2008)의 연구에서도 4~6시간이 50%이상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
연령	20 ~ 29세	561	73.9	25.25	.324
	30 ~ 39세	118	15.5		
	40 ~ 49세	80	10.6		
용돈	30만원미만	177	23.3	53.57	1.845
	30 ~ 50만원	266	35.0		
	50 ~ 100만원	210	27.7		
	100 ~ 200만원	76	10.0		
	200만 원 이상	30	4.0		
혼인여부	미혼	606	79.8	-	-
	기혼	142	18.7		
	독신(이혼,사별포함)	11	1.4		
흡연	0개	566	74.6	2.49	.200
	1~5개	64	8.4		
	6~10개	77	10.1		
	11~20개	28	3.7		
	20개 이상	24	3.2		
음주 몇 회	0회	283	37.3	1.78	.052
	1~2회	376	49.5		
	3~4회	81	10.7		
	5~6회	17	2.2		
	7회	2	3		
수면시간	3시간미만	8	1.1	6.771	.0585
	3~5시간	123	16.2		
	6~9시간	588	77.5		
	10시간이상	40	5.3		

n=75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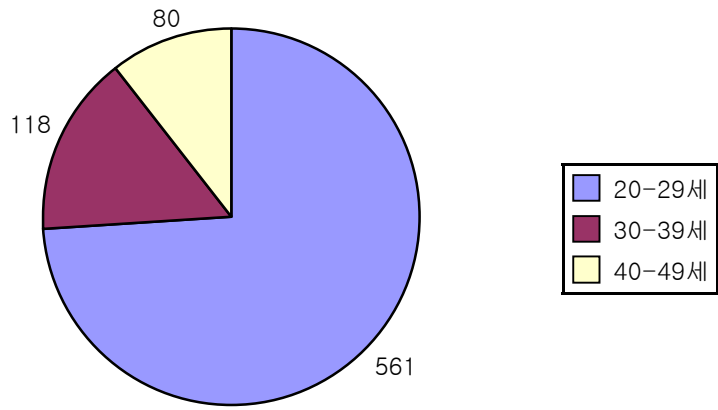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자의 연령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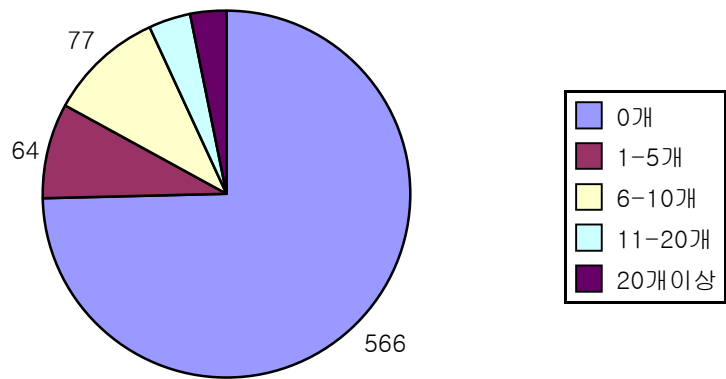


그림 2. 조사대상자의 흡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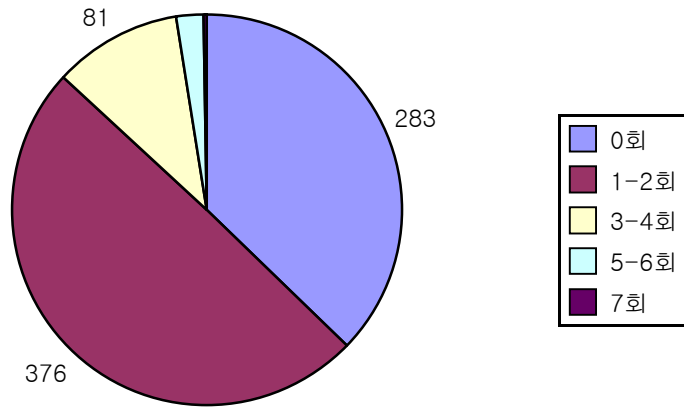


그림 3. 조사 대상자의 음주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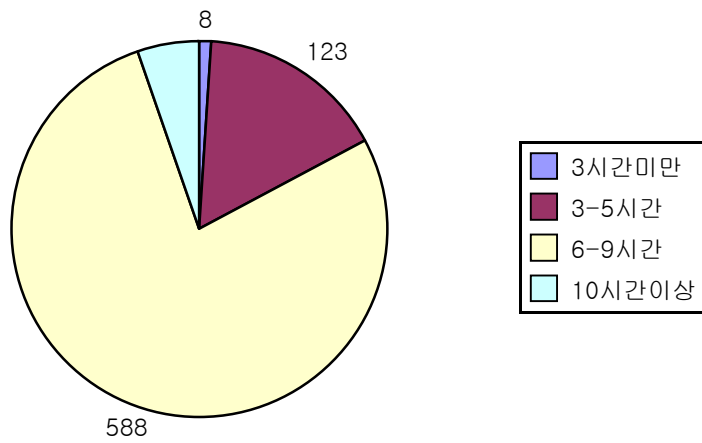


그림 4. 조사 대상자의 수면 시간정도

## 2) 흡연, 음주 요인에 따른 분석

주요 변수들 가운데 탈모와 관련된 흡연, 음주의 변수를 나이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흡연율의 경우, 전 연령층에 걸쳐서 안한다는 응답이 566명(74.6%)로 많았으나, 매일 1회 이상 하는 경우 20-29세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연령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교차 분석 결과 높은 유의수준( $p < 0.05$ )을 보이고 있다. 음주율의 경우,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20대연령층이 높았으며 매주 1-2회를 한다는 응답이 279명(36.7%)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차 분석 결과 유의수준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탈모와 연관성이 있는 흡연율과 음주율을 종합해볼 때, 20대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2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흡연율과 음주율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탈모자가 증감되었는지 추가적인 연구도 실시된다면 흡연율과 음주율이 탈모에 미치는 연관성의 유의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 2. 흡연, 음주 교차 분석

	나이			전체 (백분율)	χ <sup>2</sup> (p)
	20-29	30-39	40-49		
흡연					
0회	392(51.6)	103(13.6)	71(9.3)	566(74.6)	<b>35.287</b> <b>(.004)</b> <b>**</b>
1-5	53(7.0)	6(0.8)	5(0.7)	64(8.4)	
5-10	70(9.2)	5(0.7)	2(0.2)	77(10.1)	
11-20	24(3.2)	3(0.4)	1(0.1)	28(3.7)	
20회이상	22(2.9)	1(0.1)	1(0.1)	24(3.2)	
전체	561(73.9)	118(15.5)	80(10.6)	759(100.0)	
음주					
0회	205(27.0)	45(5.9)	33(4.6)	283(37.3)	15.475 (.490)
1~2회	279(36.7)	57(7.5)	40(5.2)	376(49.5)	
3~4회	61(8.0)	16(2.1)	4(0.5)	81(10.7)	
5~6회	14(1.9)	-	3(0.4)	17(2.2)	
6회	2(0.3)	-	-	2(0.3)	
전체	561(73.9)	118(15.5)	80(10.6)	759(100.0)	

\* p<0.1, \*\* p<0.05,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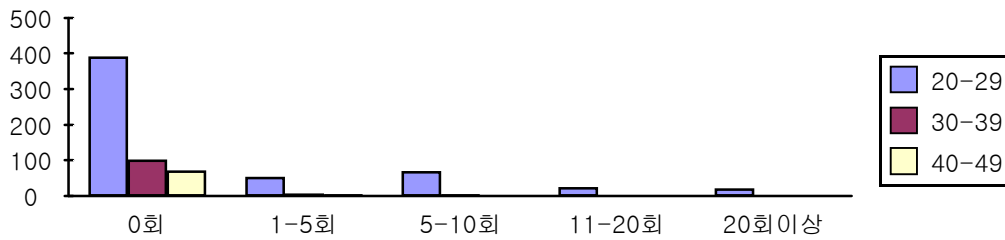


그림 5. 나이에 따른 흡연을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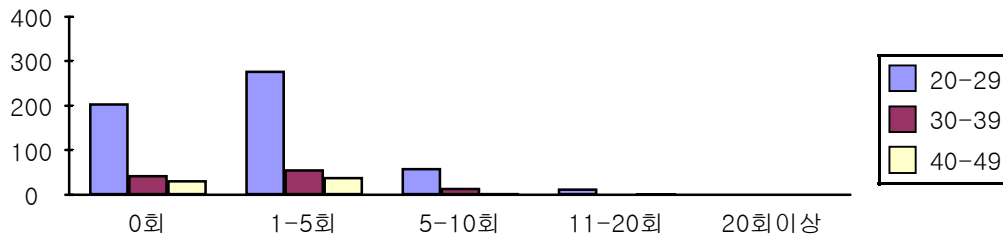


그림 6. 나이에 따른 음주율 교차분석

### 3) 식생활 분석

조사대상자의 식생활 분석은다음의 <표 3>과 같다. 식사량의 경우 2끼 380명(50.1%), 3끼 308명(40.6%)을 나타나고 있고 평균 2.32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 연구대상이 20대인 것을 감안할 때 주로 학생과 사회 초년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어서 비교적 적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습관의 경우 164명 (21.6%)이 건전한 식습관을 유지하나 그 외의 595명(78.3%)은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짠 음식과 야식, 육류와 기름진 음식 순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미영(2009), 이방실(2009)의 연구에서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고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를 섭취하는 결과가 많은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커피의 경우 259명 (34.1%)을 제외한 500명 (65.8%)의 응답자가 최소 1회이상 커피를 마시며 평균 1.99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경숙(2008)의 연구에서도 하루 1-2잔을 마시는

응답자가 50%를 차지하여 본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수분섭취의 경우 1일 6.62잔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지경숙(2008)의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5잔 미만을 마시는 대상이 70%를 차지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수분섭취량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의 경우 1회이상 먹는 응답자가 647명(85.2%)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2.01회를 먹는 것을 매우 높은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표 3. 조사 대상자의 식생활 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
식사량	1끼	65	8.6	2.32 .0233
	2끼	380	50.1	
	3끼	308	40.6	
	4끼	6	.8	
식습관	육류와 기름진 음식	91	12.0	- -
	자극적인 음식	224	29.5	
	음주와 흡연 과다	20	2.6	
	짙은 폭식과 야식	114	15.0	
	인스턴트 위주 식사	146	19.2	
	해당사항 없음	164	21.6	
커피	안 마신다	259	34.1	1.99 .068
	1~2컵	335	44.1	
	3컵~5컵	147	19.4	
	6컵이상	18	2.4	
물	5컵미만	523	68.9	6.62 .088
	6~10컵	190	25.0	
	11컵이상	46	6.1	
패스트푸드	0번	112	14.8	2.01 .062
	1~2번	407	53.6	
	3~4번	165	21.7	
	5번 이상	75	9.9	

n=75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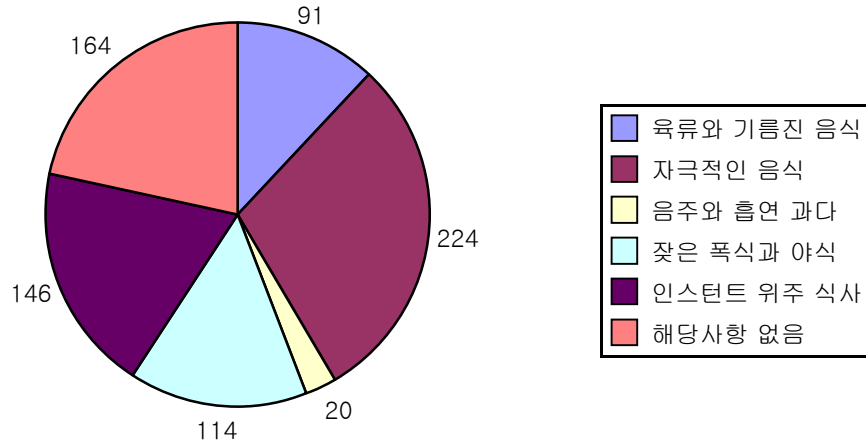


그림 7.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

#### 4) 식습관과 패스트푸드 섭취에 따른 분석

탈모와 연관성이 높은 식습관, 패스트푸드 등을 나이에 맞게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식습관의 경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164명(21.6%)이나 대부분의 연령층이 나쁜 식습관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나 자극적인 식습관이 전 연령과 식습관 세부항목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김치 및 젓갈 등 맵고 짠 한국의 음식 문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에 제시한 <표 4>처럼 주로 20대 연령층이 나쁜 식습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보인다.

식습관 분석의 경우 매우 높은 유의성( $p < 0.001$ )을 나타내고 있다.

패스트푸드의 경우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가 112명(14.8%)에 반해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1주일에 적어도 1-2회 407명(53.6%)을 보이고 있으며 30-39세 75명(10.0%), 40-49세 41명(5.4%)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예로 들어 볼 수가 있다. 이는 20대만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 걸쳐서 우리 생활 식습관에 패스트푸드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다. 패스트푸드 분석의 경우 높은 유의확률( $p < 0.05$ )을 보이고 있어 지경숙(2008)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학생층이 자주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결과와 본 연구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연령대를 막론하고 식습관과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을 볼 수가 있다.

표 4. 식습관, 패스트푸드 섭취량 교차 분석

	나이			전체 (백분율)	$\chi^2(p)$
	20-29	30-39	40-49		
식 습 관	육류&기름진	64(8.4)	19(2.5)	8(1.1)	91(12.0)
	자극적인	156(20.6)	44(5.8)	24(3.1)	224(29.5)
	음주흡연과다	18(2.4)	2(0.3)	-	20(2.6)
	짙은폭식,야식	88(11.5)	12(1.6)	14(1.8)	114(15.0)
	인스턴트 위주	134(17.6)	8(1.1)	4(0.5)	146(19.2)
	해당사항 없음	101(13.3)	33(4.3)	30(3.9)	164(21.6)
	전체	561(73.9)	118(15.5)	80(10.6)	759(100.0)
패 스 트 푸 드	0회	74(9.8)	19(2.5)	19(2.5)	112(14.8)
	1-2회	273(37.3)	76(10.0)	48(6.3)	407(53.6)
	3-4회	138(18.1)	16(2.1)	11(1.4)	165(21.7)
	5회이상	66(8.7)	7(0.9)	2(0.3)	75(9.9)
	전체	561(73.9)	118(15.5)	80(10.6)	759(100.0)

\*  $p < 0.1$ , \*\*  $p < 0.05$ ,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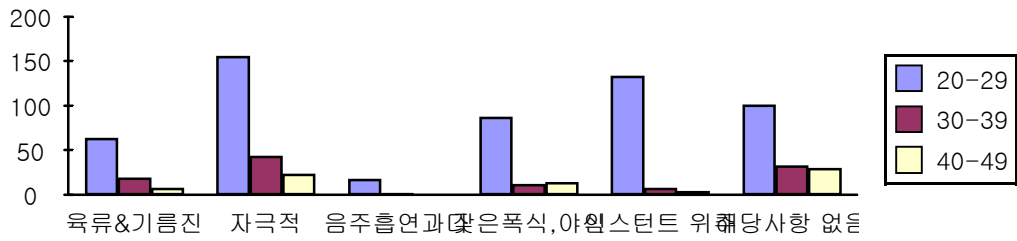


그림 8. 식습관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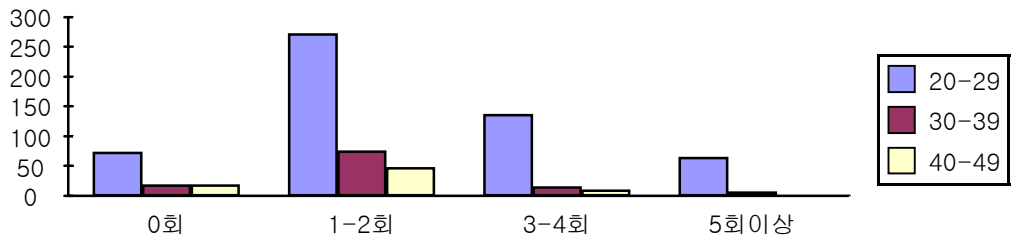


그림 9. 패스트푸드 섭취율 교차분석

5) 탈모관련 생활 습관

탈모와 관련된 생활 습관의 교차 분석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매우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정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20대 연령층에서 불규칙한 생활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사회 초년생과 학생 신분에 따른 결과로 추론된다. 그 외에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누적된 피로가 가장 높았다. 이는 학생신분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업무량의 여파로 볼 수가 있다. 본 분석은 높은 유의확률( $p < 0.05$ )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종합해볼 때, 대부분의 수치에서는 20대의 연령층이 압도적이었으나, 패스트푸드, 식습관, 탈모생활습관등으로 볼 때 전 연령층에 걸쳐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탈모생활 습관 교차 분석

		나이			전체 (백분율)	$\chi^2(p)$
		20-29	30-39	40-49		
탈 모 생 활 습 관	불규칙한 생활	164(21.6)	25(3.3)	9(1.2)	198(26.1)	<b>41.564</b> <b>(.011)</b> <b>**</b>
	누적된 피로	92(12.1)	32(4.2)	23(2.9)	146(19.2)	
	스트레스와 불안정	214(28.2)	49(6.5)	30(4.0)	293(38.6)	
	외출 시 모자 착용	12(1.5)	1(0.1)	2(0.3)	15(2.0)	
	헤어 제품 과다사용	48(6.3)	6(0.8)	7(1.0)	61(8.0)	
	과도한 자외선 노출	4(0.5)	-	2(0.3)	6(0.8)	
	규칙적 생활&운동	27(3.6)	5(0.7)	8(1.1)	40(5.3)	
	전체	561(73.9)	118(15.5)	80(10.6)	759(100.0)	

\*  $p < 0.1$ , \*\*  $p < 0.05$ ,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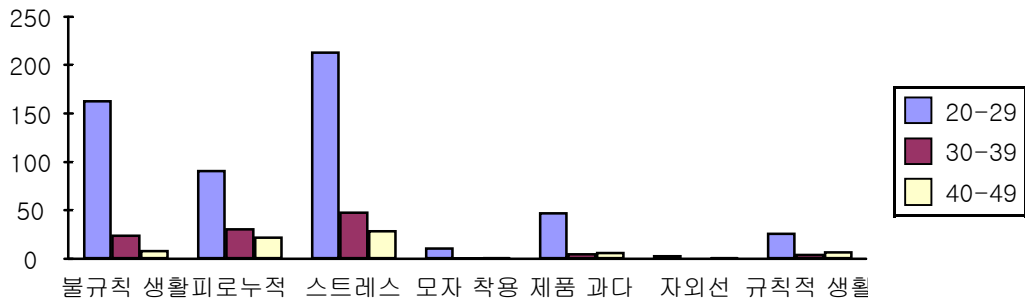


그림 10. 탈모생활 습관 교차분석

#### 6) 건강 및 심리상태

전체 대상자 759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6>와 같다.

보통의 성격을 가진 응답자가 364명 (48.0%)을 나타내고 있고 평균적으로 2.0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보통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트레스의 경우 평균으로 3.27을 기록하여 보통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적인 면에서는 진로 및 취업이 229명 (30.2%)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20대인 점을 볼 때 사회적으로 취업의 여파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있다.

표 6. 건강 및 심리 상태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
성격	내향적이다	175	23.1	2.06	.026
	보통이다	364	48.0		
	외향적이다	220	29.0		
스트레스	전혀받지않는다	16	2.1	3.27	.450
	조금 받는다	271	35.7		
	보통이다	161	21.2		
	받는다	115.	15.2		
	매우 받는다	196	25.8		
스트레스의 가장 큰 비중	가정문제	90	11.9	-	-
	대인관계	149	19.6		
	외모	73	9.6		
	학업 및 성적	126	16.6		
	진로 및 취업	229	30.2		
	건강문제	49	6.5		
	기타	43	5.7		
월경주기	전혀 그렇지 않다	57	7.5	3.09	.038
	그렇지 않다	138	18.2		
	보통이다	306	40.3		
	그렇다	193	25.4		
	매우 그렇다	65	8.6		

n=759(100%)

## 2. 모발제품의 구매행태 및 사용실태

### 1) 모발제품의 구매행태 및 인식조사

모발제품의 구매행태 및 인식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미용실, 전문센터 243명(32%)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문가가 밀집된 헤어 미용실과 전문센터에서 서비스 시술을 받으면서 두피 및 탈모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의 수치로는 인터넷 178명(23.5%)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을 많이 접하는 20대 연령층이 본 연구에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영란(2004), 이지영(2006)의 연구에서도 미용실에서 모발에 대한 문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견이 높은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영란(2004)의 연구에서 21~29세의 연령층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수집을 많이 얻는 사례가 많은 결과를 볼 때 본 연구가 20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인터넷에서 많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볼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발의 구입처의 경우 앞서 제시한 정보 수집과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이 밀집된 미용실/두피모발관리실 253명(33.3%)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대형할인점 176명(23.2%), 화장품전문점 160명(21.1%)로 나타났다. 이방실(2009), 하성이(2006)의 연구에서도 미용실이 가장 높고 대형할인점이 차선인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생활주변에 많이 분포된 대형 프랜차이즈 할인점과 화장품 전문점의 양상으로 볼 수가 있다.

모발화장품의 경우 반드시 하는 응답자가 98명(12.9%), 가끔 한다 436명(57.4%)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 응답자가 225명(29.6%)을 차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용 이유로는 영양공급이 366명(48.2%)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인식도에 있어서 영양공급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모발화장품의 미사용 사유의 경우 제품에 대해 잘 모른다 292명(38.5%), 사용이 번거롭다 249명(32.8%)을 보이고 있어서 모발화장품에 대한 홍보 및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모발제품의 구매행태 및 인식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모발제품의 구매행태 및 인식조사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정보수집	TV등 방송매체	109	14.4
	인터넷	178	23.5
	신문 또는 잡지	66	8.7
	미용실, 전문센터	243	32.0
	병원, 약국 등 전문인	23	3.0
	주변 사람	140	18.4
구입처	화장품 전문점	160	21.1
	백화점	52	6.9
	미용실/두피모발관리실	253	33.3
	병원 또는 약국	21	2.8
	대형할인점	176	23.2
	인터넷	97	12.7
모발화장품 인식조사	반드시 한다	98	12.9
	가끔 한다	436	57.4
	전혀 하지 않는다	225	29.6
모발화장품 사용이유	두피, 모발의 재생	155	20.4
	비듬완화	53	7.0
	영양공급	366	48.2
	탈모예방	83	10.9
	전혀 사용하지 않음	99	13.0
모발화장품 미사용 이유	두피 모발이 건강해서	49	6.5
	효능 효과가 없어서	57	7.5
	사용이 번거로워서	249	32.8
	가격이 비싸서	112	14.8
	제품에 대해 잘 몰라서	292	38.5

## 2) 두피모발 제품 사용 및 행태

두피모발 제품 사용 및 행태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사용하는 샴푸의 종류의 경우, 탈모 샴푸를 사용하는 응답층이 125명 (16.5%)이어서 비교적 적었고 대부분 일반 샴푸 530명(69.8%)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정임(2008), 김미영(2009), 문영란(2004), 오강수(2006), 윤주화(2005), 이방실(2009), 이상미(2008), 정의성(2007)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 샴푸를 쓰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용시기의 경우 주로 아침에 일어난 후에 씻는 것이 539명(71.1%)로 나타났고, 평균 1.18일, 1.11회로 머리를 감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세정기준 1일의 경우 김미영(2009)의 연구에서 90%, 문영란(2004)의 연구에서 77.9%, 오강수(2006)의 연구에서 66.8%, 윤주화(2005)의 연구에서 62.2%, 정의성(2007)의 연구에서 80%, 하성이의 연구에서 55.4%로 상위권으로 나타났듯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침에 하는 비중은 오강수(2006)의 연구에서 74.7%, 윤주화의 연구에서 62.2%, 이상미(2008)의 연구에서 70.5%, 지경숙(2008)의 연구에서 66.3%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분한 세정의 경우 평균 3.97로 ‘그렇다’에 가까웠으며 시간은 평균 5.64분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정임(2008)의 연구에서 3.98, 이방실(2009)의 연구에서 충분한 세정을 한다는 응답자가 52.6%에 가까운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조방식의 경우 온풍 드라이 424명(55.9%)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152명(20.0%)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주로 일반샴푸를 많이 사용하고, 아침에 일어난 후 씻고 1일 1회 세정을 하며, 주로 온풍 드라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표 8. 두피모발제품 사용 및 행태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
샴푸 종류	사용하지 않는다	16	2.1	
	일반 샴푸	530	69.8	
	비듬 샴푸	60	7.9	-
	샴푸 린스 겸용	28	3.7	
	탈모 샴푸	125	16.5	
사용 시기	아침에 일어난 후	539	71.1	
	오후에 자기전	146	19.2	-
	아침과 저녁에 각 한번씩	74	9.75	
자주 감음 (일)	1일	645	85.0	
	2일	99	13.0	
	3일	7	0.9	1.18
	4일	6	0.8	
	5일	2	0.3	
자주 감음 (회)	1회	675	88.9	
	2회	83	10.9	1.11
	3회	1	.1	
충분한 세정	전혀 그렇지 않다	11	1.5	
	그렇지 않다	9	1.2	
	보통이다	171	22.5	3.97
	그렇다	370	48.75	
	매우 그렇다	198	26.1	
시간	3분미만	152	20.0	
	3~5분	396	52.2	5.64
	6~10분	164	21.6	
	11분 이상	47	6.2	
건조 방식	자연건조	152	20.0	
	온풍 드라이	424	55.9	
	냉풍드라이	119	15.6	-
	선풍기	9	1.2	
	타월	55	7.2	

n=759(100%)

### 3) 피머, 염색 기술 및 트리트먼트 사용행태

피머, 염색 기술 및 트리트먼트 사용행태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연평균 피머 1.74회, 염색 2.93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트리트먼트와 컨디셔너의 경우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방실(2009)의 연구에서 여성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구매 행태 및 사용 실태를 종합해볼 때,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문 인력이 집중된 미용실 및 전문센터에서 두피 정보와 구입을 하게 되고 모발화장품에 대해서는 영양공급 차원에서 사용한다는 인식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사용이 번거롭다는 한계점을 볼 수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있어서 브랜드 메이커나 광고보다도 제품의 효과를 중요시한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일반 샴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탈모 제품 사용에 대한 홍보와 대중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퍼머, 염색 기술 및 트리트먼트의 사용행태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
퍼머	0회	169	22.3	1.74	.057
	1~3회	493	65.0		
	4~7회	94	12.4		
	8회 이상	3	.4		
염색	0회	149	19.6	2.93	.109
	1~3회	374	49.3		
	4~7회	183	24.1		
	8회 이상	53	7.0		
트리트먼트	반드시 사용한다	299	39.4	-	-
	가끔 사용한다	375	49.4		
	전혀 사용 안한다	85	11.2		
컨디셔너	반드시 사용한다	402	53.0	-	-
	가끔 사용한다	266	35.0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91	12.0		

n=759(100%)

#### 4) 두피 관련 기술 인식

두피 관련 기술 인식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전체 대상자 759명중 211명 (27.8%)만이 탈모 관리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강수(2006), 이방실 (2009), 이지영(2006), 정의성(2007)의 연구에서 관리를 받지 않은 인원이 절반 이하에서 소규모인 과거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로 미용실에서 기술을 받는 응답자가 121명(57.3%), 두피모발전문센터 45명(21.3%)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헤어 서비스를 받는 미용실에서 추가적으로 두피 기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연화(2003), 오강수(2006), 윤주 화(2005), 이방실(2009), 이지영(2006), 전정애(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미용실

에서 모발관리를 받는다는 응답자가 다수로 나왔다. 관리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1개월 미만 74명(35.1%) 이고 평균 2.52를 보이고 있는데 본 설문 대상 층이 20대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낮은 수치라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20대 연령층에게 있어서 탈모 치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탈모 방지 효과를 예상하는 기간의 경우 6개월~1년, 91명(43.1%)을 보이고 평균 5.67을 보이고 있어서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현재 시술 비용에 대한 생각으로는 비싸다 응답이 115명(54.5%)을 보이고 평균 4.33을 보이고 있어서 비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적절한 비용으로는 평균 3.77만원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지영(2006)의 연구에서 적정 비용이 1~3만원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높고, 정의성(2007)의 연구에서 적정 비용이 3만원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술후 만족도의 경우 평균 3.41로 보통이다와 만족스럽다의 중간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평금(2010), 이경란(2008), 이방실(2009), 이지영(2006), 하성이(2006)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통이다와 만족스럽다의 중간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만족 사유의 경우 고가의 관리비용 96명(45.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영란(2004), 오강수(2006), 윤선영(2009), 이경란(2008)의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가의 관리비용이 서비스를 저해한다는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10>.

표 10. 두피 관련 시술의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
관리경험	예	211	27.8	-	-
	아니오	548	72.2		
시술 장소 (n=211)	미용실	121	57.3	-	-
	병원 및 한의원	18	8.5		
	두피모발전문센터	45	21.3		
	피부 관리실	23	10.9		
	기타	4	1.9		
받는자 시술 기간 (n=211)	1개월 미만	74	35.1	2.52	.102
	2-3개월	45	21.3		
	3-6개월	37	17.5		
	6개월-1년	20	9.5		
	1년 이상	35	16.6		
효과예상기 간 (n=211)	3개월 미만	33	15.6	5.67	.229
	3-6개월	51	24.2		
	6개월-1년	91	43.1		
	1년 이상	36	17.1		
비용 생각 (n=211)	매우 저렴하다	2	0.9	4.33	.293
	저렴하다	6	2.8		
	보통	62	29.4		
	비싸다	115	54.5		
	매우 비싸다	26	12.4		
적정 비용 (n=211)	3만원미만	132	62.6	3.77	.056
	4-6만원	46	21.8		
	6-10만원	15	7.1		
	10만 원 이상	18	8.5		
시술후 만족도 (n=211)	매우 불만족스럽다	6	2.8	3.41	.059
	불만족스럽다	12	5.7		
	보통이다	104	49.3		
	어느 정도 만족한다	68	32.2		
	매우 만족한다	21	10.0		
불만족 이유 (n=211)	고가의 관리비용	96	45.5	-	-
	많은 시간 부담	33	15.6		
	상담능력과 설명부족	40	19.0		
	위생상태	7	3.3		
	최신장비의 부족	7	3.3		
	관리시설의 위치	6	2.8		
	관리시술 미비	22	10.4		

##### 5) 두피관련 기술의 개선점과 필요성

두피관련 기술의 개선점과 필요성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응답자들이 제시한 개선점 중에서는 효과적이며 전문적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100명(47.4%), 두피 관리 비용의 대중화 64명(30.3%)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기타 응답자 4명(1.9%)의 경우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술해야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볼 수가 있다. 이경란(2008)의 연구에서는 관리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방실(2009)의 연구에서는 관리 비용의 대중화가 가장 높게 나왔고, 전정애(2008)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효과적인 관리 프로그램과 관리비용 대중화, 체계적인 교육을 개선해야 된다는 높은 응답이 나온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받지 않는 이유의 경우 앞의 <표 10>에 나타난 불만족사유와 더불어 경제적 부담 80명(37.9%)을 꼽을 수가 있다.

가장 좋은 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관리 65명(30.8%), 적당한 휴식과 안정 56명(26.5%)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연화(2003), 문영란(2004)의 연구에서 관리사의 뛰어난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전문제품의 사용이 차선으로 중요하다는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요성의 경우 평균 3.14로 보통이라는 여론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영란(2004)의 연구에서도 탈모의 심각성을 묻는 결과에서 보통의 결과를 나타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앞으로 두피 관리를 받겠다는 미래의사에 대해서는 평균 3.51로 보통이다와 그렇다 중간이다 수치를 볼 수가 있다. 문영란(2004), 이경란(2008), 이방실(2009)의 연구에서도 앞으로 탈모관리를 받겠다는 의견이 과반 수 이상을 나

타낸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1. 두피관련 시술의 개선점과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
개선점 (n=211)	효과적&전문적 프로그램	100	47.4	-	-
	두피관리 비용의 대중화	64	30.3		
	두피관리사의 전문교육	32	15.1		
	친절한 서비스 정신	4	1.9		
	안락한 휴게 시설	7	3.3		
	기타	4	1.9		
받지 않는 이유 (n=211)	현 상태에 대한 만족	44	20.9	-	-
	경제적 부담	80	37.9		
	시간적 부담	37	17.5		
	심리적 불편함	2	0.9		
	장소의 불편함(위치)	8	3.8		
	효과에 대한 신뢰성부족	39	18.5		
가장 좋은 관리방법 (n=211)	청결문제	1	0.5	-	-
	약물 복용 및 사용	6	2.8		
	전문적인 관리	65	30.8		
	적당한 휴식과 안정	56	26.5		
	청결한 샴푸	33	15.6		
	고른 영양섭취	23	10.9		
필요성 (n=211)	적절한 두피모발제품 사용	28	13.3	3.14	.038
	전혀 필요치 않다	8	3.8		
	약간 필요하다	33	15.6		
	보통	65	30.8		
	필요하다	68	32.2		
미래의사	매우 필요하다	37	17.5	3.51	.034
	전혀 그렇지 않다	2	0.9		
	그렇지 않다	12	5.7		
	보통이다	59	28.0		
	그렇다	99	46.9		
	매우 그렇다	39	18.5		

### 3. 두피모발관련 탈모지식

#### 1) 탈모에 대한 기초지식

탈모에 대한 기초 지식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청결성의 경우 평균 4.11이며 주로 ‘그렇다’에 해당되고 있다.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도합 31명(4.1%)을 볼 때 청결이 탈모와 연관된다는 지식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습관의 경우 평균 3.63이다. 보통과 그렇다 사이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평균 4.00이며 ‘그렇다’에 해당되고 있다. 관련이 없다는 질문은 33명(4.7%)을 차지하여 건강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지식이 지배적이라 볼 수 있다. 화학시술의 경우 평균 4.16으로 주로 ‘그렇다’에 해당되고 있다. 관련이 없다는 질문에 있어서는 도합 38명(5.0%)을 보이고 있어 화학시술을 해야 된다는 지식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가정용 모발제품의 경우 평균 3.71로 ‘그렇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실 시술의 경우 평균 3.89로 ‘그렇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경우 평균 4.27로 ‘그렇다’에 해당되고 있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이 0명(0%), 그렇지 않다 15명(2%)인 것을 볼 때 스트레스가 탈모와 연관되었다는 의견이 매우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강연화(2003), 문영란(2004), 윤선영(2009), 윤주화(2005), 이기영(2008), 이방실(2009), 이지영(2006)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도 화학시술, 청결, 건강상태, 관리실 시술, 생활 습관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탈모에 대한 기초 지식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	
청결	전혀 그렇지 않다	12	1.6	4.11	.032
	그렇지 않다	19	2.5		
	보통	124	16.3		
	그렇다	324	42.7		
	매우 그렇다	280	36.9		
생활 습관	전혀 그렇지 않다	15	2.0	3.63	.037
	그렇지 않다	99	13.0		
	보통	192	25.3		
	그렇다	302	39.8		
	매우 그렇다	151	19.9		
건강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8	1.1	4.00	.030
	그렇지 않다	27	3.6		
	보통	136	17.9		
	그렇다	372	49.0		
	매우 그렇다	216	28.5		
화학시술	전혀 그렇지 않다	11	1.4	4.16	.032
	그렇지 않다	27	3.6		
	보통	95	12.5		
	그렇다	322	42.4		
	매우 그렇다	304	40.1		
가정용 모발제품사용	전혀 그렇지 않다	4	0.5	3.71	.029
	그렇지 않다	44	5.8		
	보통	231	30.4		
	그렇다	366	48.2		
	매우 그렇다	114	15.0		
관리실 시술	전혀 그렇지 않다	5	0.7	3.89	.027
	그렇지 않다	13	1.7		
	보통	193	25.4		
	그렇다	395	52.0		
	매우 그렇다	153	20.2		
스트레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27	.027
	그렇지 않다	15	2.0		
	보통	92	12.1		
	그렇다	327	43.1		
	매우 그렇다	325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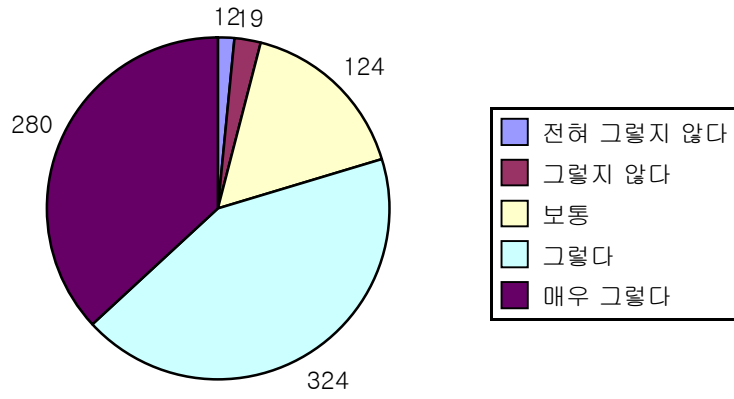


그림 11. 탈모와 두피 청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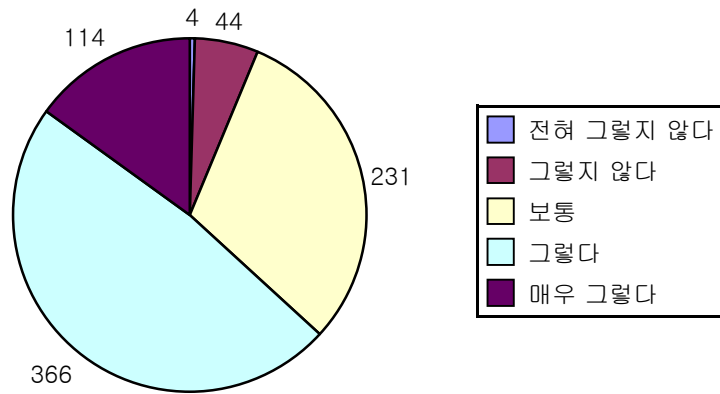


그림 12. 탈모와 모발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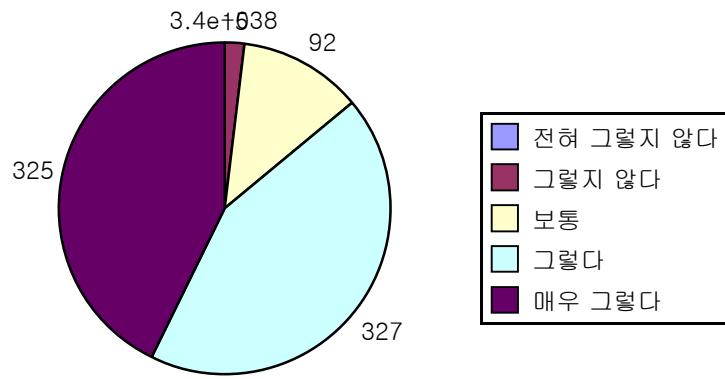


그림 13. 탈모와 스트레스

2) 탈모에 대한 기초지식 평균분석

위의 지식적인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나눈 평균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평균 3.97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대중들이 탈모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표 13. 조사 대상자들의 탈모에 대한 기초 지식 평균

빈도(명)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759	3.9766	.02058	.56692

n=759(100%)

#### 4. 탈모에 대한 인식

##### 1) 두피상태와 탈모인식

두피 상태와 탈모 인식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두피 상태의 경우, 지성(지루성 포함) 190명(25.0%) 으로 가장 높았으나, 대부분의 수치를 볼 때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자신의 두피 상태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8명(12.9%)를 보이고 있다.

두피에 대한 고민의 경우 푸석하고 윤기 없는 모발 181명(23.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비듬, 가려움 131명(17.3%), 힘없이 얇고 가는 모발 125명(16.5%)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피 상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느끼는 탈모 정도에 대해서는 탈모가 약간 있다 269명 (35.4%) 로 가장 높으나 잘 모르겠다 223명(29.3%)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논의된 현재 두피 상태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상태를 모르는 응답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탈모에 대한 관심도로는 평균 2.93으로 '보통이다' 에 가까웠다.

하루 예상 탈모량이 경우 대부분의 연령층이 50~100개 522명(68.8%)을 보이고 있다. 전정애(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1일 탈모량을 50~70본 이하로 인지하고 있으며, 오강수(2006), 이방실(2009), 정의성(2007), 하성이(2006)는 모발탈락 개수가 소량으로 인지하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14. 두피상태와 탈모의 인식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
두피 상태	정상	136	17.9	-	-
	지성(지루성 포함)	190	25.0		
	건성	150	19.8		
	민감성	63	8.3		
	복합성	122	16.1		
	잘 모르겠다	98	12.9		
두피 고민	탈모	71	9.4	-	-
	비듬, 가려움	131	17.3		
	기름진 두피	85	11.2		
	새치나 흰머리	71	9.4		
	힘없이 얇고 가는 모발	125	16.5		
	푸석하고 윤기 없는 모발	181	23.8		
	곱슬머리	49	6.5		
	머리술 문제	46	6.1		
	탈모가 전혀 없다	236	31.1		
	탈모가 약간 있다	269	35.4		
탈모 정도	탈모가 심하다	35	4.1	-	-
	잘 모르겠다	223	29.3		
	아주 많다	77	10.1		
	많다	153	20.2		
탈모에 대한 관심도	보통이다	339	44.7	2.93	.038
	조금 있다	129	17.0		
	없다	61	8.0		
	50-100개	522	68.8		
하루 예상 탈모량	100-150개	168	22.1	-	-
	150-200개	40	5.3		
	200개 이상	16	2.1		
	기타 (잘 모르겠다)	14	1.6		

n=75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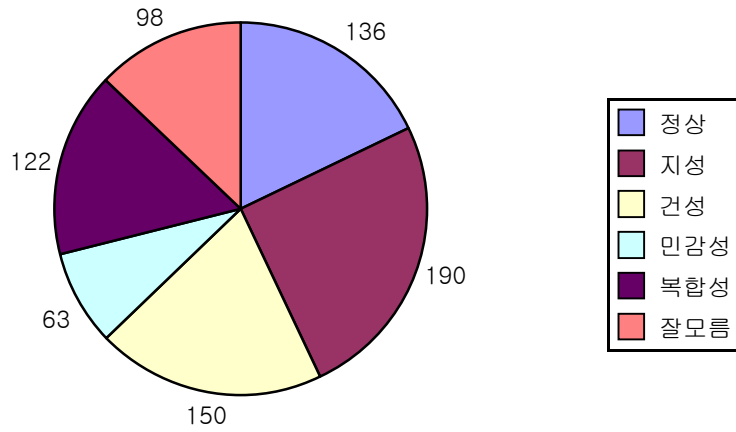


그림 14. 조사대상자의 두피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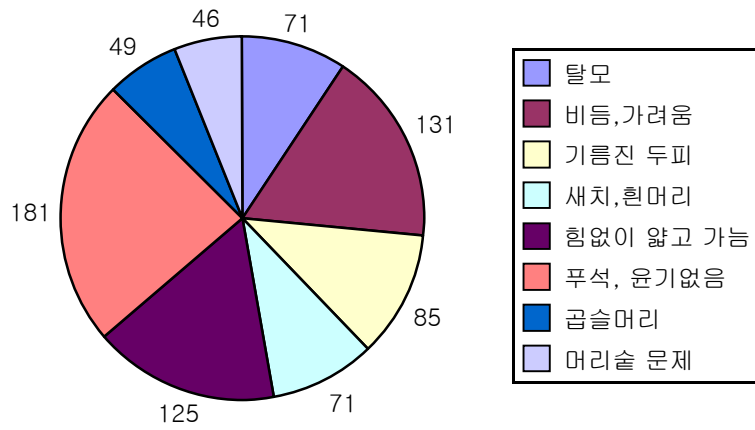


그림 15. 조사대상자의 두피고민

## 2) 탈모의 요인인식과 개선방법

탈모의 요인인식과 개선방법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가족 중 탈모자의 경우 주로 아버지가 195명(25.7%)로 높고, 할아버지가 78명(10.3%)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성이(2006)의 연구에서처럼 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탈모로 고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인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논의된 <표 14 >와 같이 스트레스 381명(50.2%)로 가장 지배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유전 154명(20.3%)로 나타났다.

탈모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인상 및 이미지 악화 310명(40.8%), 자신감 결여 307명(40.4%)로 나타났다. 대부분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탈모가 심각한 문제도 나타나지만 자신감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방실(2009)의 연구에서 자신감 결여가 70%를 차지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탈모 관리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올바른 세발 및 두피관리 286명(37.7%)로 나타났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157명(20.7%), 스트레스 해소 147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탈모의 요인인식과 개선방법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가족 탈모자	할아버지	78	10.3
	할머니	15	2.0
	아버지	195	25.7
	어머니	63	8.3
	외할아버지	33	4.3
	외할머니	2	0.3
	형제, 자매	23	3.0
	기타 (없다)	350	46.1
가장 큰 원인	유전	154	20.3
	스트레스	381	50.2
	환경오염	35	4.6
	영양부족	42	5.5
	두피질환	32	4.2
	화학적인 시술	67	8.8
	기타	48	6.3
탈모와 관련된 어려움	인상 및 이미지 악화	310	40.8
	자신감 결여	307	40.4
	이성(배우자)의 결점	46	6.1
	사교활동, 취업 기회 결여	77	10.1
	기타 (모르겠다)	19	1.3
가장 좋은 방법	고른 영양섭취	108	14.2
	충분한 휴식과 수면	157	20.7
	올바른 세발 및 두피관리	286	37.7
	금연 금주	16	2.1
	탈모 치료제	45	5.9
	스트레스 해소	147	19.4

n=75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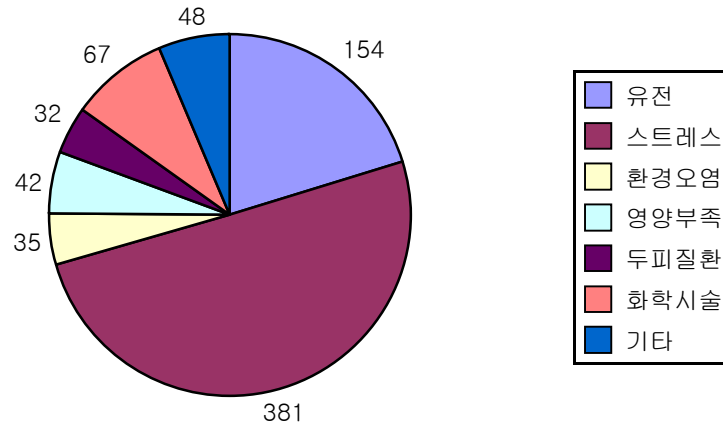


그림 16. 탈모요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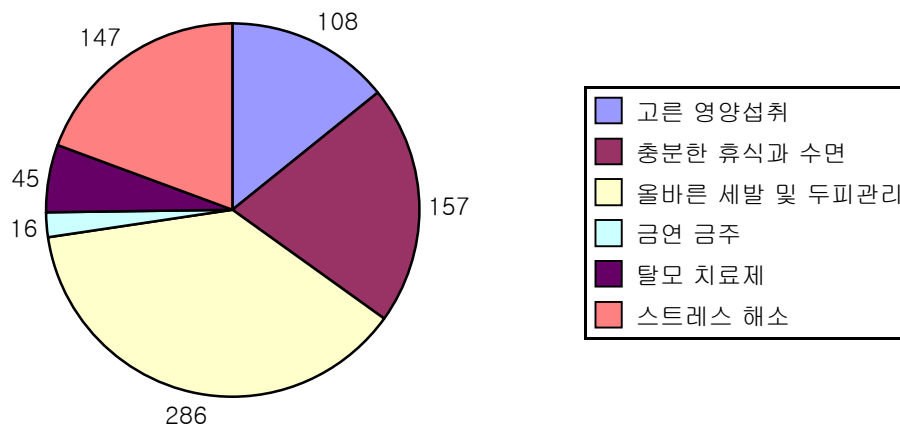


그림 17. 탈모의 개선방법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40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두피모발관리 및 탈모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인구 통계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연령층은 20~29세가 561명(73.9%)으로 주요 대상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5.2세로 나타났으며 한달 용돈은 53.5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자중 미혼자는 606명(79.8%)을 나타내며, 흡연의 경우 비흡연자가 566명(74.6%)이며 흡연자의 경우 1일평균 2.49개비의 담배를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주의 경우 1주일에 평균 1.78회를 가지고 음주시 6.08잔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수면시간은 약 6.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불면상태의 원인으로 심리적 요인 311명(41.0%), 생활습관 239명(31.5%)이 높았다. 식생활의 경우 1일평균 2.32끼를 섭취하고, 식습관의 경우 자극적인 음식 224명(29.5%), 인스턴트 위주 식사 146명(19.2%)로 가장 많았다. 커피는 1일 평균 1.99잔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물은 1일 평균 6.62잔, 패스트푸드는 1주일에 2회가량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체형은 평균 3.13으로 '보통이다'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중조절경험의 경우 507명(66.8%)의 대상자가 실시한 전력이 있다. 운동량의 경우 1주일 평균 1.54회, 평균 31.8분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모와 관련된 생활 습관중 스트레스와 불안정이 293명(38.6%), 불규칙한 생활 198명(26.1%)로 높게 측정되었다.

## 2. 조사 대상자들의 건강 및 심리상태

성격은 평균 2.06으로 ‘보통이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평균 3.27으로 ‘보통이다’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스트레스의 가장 큰 비중으로는 진로 및 취업 229명(30.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월경주기의 경우 평균 3.09로 ‘보통이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 3. 조사 대상자들의 구매행태 및 인식 조사

정보 수집은 주로 미용실 243명(32.0%), 인터넷 178명(23.5%)로 나타났다. 제품을 구입하는곳은 주로 미용실 253명(33.3%)을 차지하였다. 모발화장품에 대한 조사는 가끔 한다는 응답이 436명(57.4%)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사용이유로는 영양공급이 366명(48.2%)을 차지하였다. 모발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품을 잘 모른다’ 292명(38.5%), ‘사용이 번거롭다’ 249명(32.8%)을 나타냈다. 제품선택의 중요성에서는 제품의 효과가 608명(79.9%)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용하는 샴푸는 일반 샴푸 530명(69.8%)이며, 사용 시기는 주로 아침에 일어난 후 539명(71.1%)로 조사되었다. 세정 시기의 경우 1.18일, 1.11회로 1일 1회가 평균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세정에 대한 조사에서는 3.97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으며 주로 5.64분 동안 머리를 세정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대부분 온풍 드라이 424명(55.9%)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중에 펴머는 평균 1.74회, 염색은 2.93회를 사용하며 트리트먼트는 가끔 사용한다 375명(49.4%), 컨디셔너는 반드시 사용한다 402명(53.0%)로 높게 조사되었다.

#### 4. 조사 대상자들의 두피 관련 시술 인식

경험을 받은 인원 211명(27.8%)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결과에서 주로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이 121명(57.3%)을 차지하였고 약 2.52개월 동안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상하는 효과기간에 대해서는 5.6개월로 나타났다으며 비용에 대한 생각에서는 평균 4.33으로 '비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적정비용으로는 평균 3.77만원으로 나타났고 시술후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 3.41로 '보통이다'보다 조금 높았다. 불만족의 사유로는 고가의 관리 비용 96명(45.5%)이 가장 높았다. 두피 관련 시술의 개선사항으로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100명(47.4%), 두피관리 비용의 대중화 64명(30.3%)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80명(37.9%)로 나타났다. 가장 좋은 관리방법으로는 전문적인 관리방법 65명(30.8%), 적당한 휴식과 안정 56명(26.5%)로 나타났다. 두피 관련 시술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평균 3.14로 '보통이다'에 나타났으며 미래에 두피관련 시술에 대한 의사로는 평균 3.51로 '보통이다'와 '그렇다'의 중간에 나타났다.

#### 5. 조사 대상자들의 탈모에 대한 기초 지식

청결은 평균 4.11로 '그렇다'에 나타났으며, 생활습관은 평균 3.63으로 '보통이다'와 '그렇다' 중간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로는 평균 4.00으로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화학시술의 경우 평균 4.16으로 '그렇다'에 나타났다. 가정용 모발 제품 사용으로는 평균 3.71로 '보통이다'와 '그렇다'의 중간에 나타났으며 관리실 시술에서는 평균 3.89로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경우 평균 4.27로 '그렇다'에 나타났으며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는 평균 4.04로

‘그렇다’에 나타났다. 이들을 총합한 평균은 3.97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6. 조사 대상자들의 탈모에 대한 인식

두피 상태의 경우 지성 190명(2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건성 150명(19.8%), 정상 136명(17.9%), 복합성 122명(16.1%), 잘 모르겠다 98명(12.9%)로 다양한 평균의 수치를 볼 수 있다. 두피에 대한 고민으로는 푸석하고 윤기 없는 모발 181명(23.8%), 비듬, 가려움증의 모발 131명(17.3%), 힘없이 얇고 가는 모발 125명(16.5%)로 나타났다. 설문자들의 탈모에 대한 느낌은 ‘탈모가 약간 있다’ 269명(35.4%), ‘탈모가 전혀 없다’ 236명(31.1%), ‘잘 모르겠다’ 223명(29.3%)로 다양한 결과를 보였으며 탈모에 대한 관심도는 평균 2.93으로 ‘보통이다’에 나타났다. 하루 예상 탈모량은 50~100개 522명(68.8%) 정상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가족 중 탈모자는 주로 아버지 195명(25.7%)을 나타냈으나 탈모자가 없는 사람들도 350명(46.1%)로 조사되었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생각으로는 스트레스 381명(50.2%)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탈모와 관련 어려움으로는 인상 및 이미지 약화 310명(40.8%), 자신감 결여 307명(40.4%)로 나타났다. 탈모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올바른 세발 및 두피 관리 286명(37.7%)로 나타났다.

## 7. 제언

본 연구는 두피, 모발 관리와 탈모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이며 두피, 모발 및 탈모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 대상자를 서울 지역의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국적인 표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서울 지역의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주로 학생층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때문에, 이를 전국적인 표본과 전 직업군의 표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두피, 모발 관리와 탈모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대해서 여러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조사자의 인지적 측면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영향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두피, 모발 관리와 탈모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향후 연구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적절한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여 현재의 특성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참고문헌

강연화(2003), 두피 및 탈모관리 실태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곽형심(2003),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아로마요법의 유효성 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영(2009), 두피 및 탈모 관리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임(2008), 두피 및 모발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평금(2010), 두피 및 탈모 제품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소비자 인식 및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영란(2004), 직장인의 두피 및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왕혜자(2009), 일부 미용학 전공 여대생의 두피, 모발 건강상태와 관련 요인,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오강수(2006), 두피 및 모발관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위수영(2008), 두피·모발관리실의 이용실태와 고객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선영(2009), 두피 및 모발관리 시설 형태에 따른 이용실태 및 고객만족도 -  
대전지역중심으로 -, 건양대학교 대학원 의료뷰티학과, 석사학위 논문

윤주화(2005), 한국 여성의 두피 및 모발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진희(2006), 모발과 두피·탈모에 관한 실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란(2008), 두피 및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강원, 충  
북), 숙명여자대학교 원격, 석사학위 논문

이기영(2008), 성인남녀의 탈모실태와 체질과의 상관관계 분석, 서경대 미용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방실(2009), 두피 및 모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  
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미(2008), 두피 및 모발 관리에 따른 제품 구매와 사용 방법,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지영(2006), 두피 및 모발 관리에 관한 선호도 조사 및 전망, 중앙대 의약  
식품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남춘(2005), 탈모자와 일반인의 두발상태 및 관리, 식습관, 스트레스 정도, 가족력에 대한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정애(2008),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두피,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의성(2007), 두피 및 모발 관리의 필요성과 인식에 관한 조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경숙(2008), 20-30대 여성의 탈모 원인과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하성이(2006), 탈모두피관리의 실태 및 고객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갑연(2003), 모발 및 두피 관리학, 광문각

김영숙(2005), 두피모발관리학, 대경

박영숙(2008), 두피모발관리학, 훈민사

송지형(2010), 두피관리학, 형설출판사

윤천성(2004), 모발과 두피관리, 훈민사

이은혜, 김봉인, 유승희(2008), 피부 영양과 식이, 도서출판 해란

조성일(2006), 두피탈모관리학, 리그라인

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2011), 두피모발관리학, 군자출판사

대한미용교수협의회(2007)

과워모코리아, <http://www.powermo.com//>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학술지>

정숙희(2006), 여성들의 두피, 모발자가진단에 따른 모발건강 실천행위, 한국  
두피모발미용학회지 제 2권 제 1호

# ABSTRACT

## Study on Perception and Reality of Scalp and Hair Treatment & Alopecia

Lee, Jin-Hee

Department of Cultural Industry  
(Skin Care and Obesity Management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cently, hair loss is increasing in women in their 20s-40s and such acquired factors as westernized eating habits, increase of stress from social life, wrong diet as well as genetic factors are said to contribute to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hair and scalp care products and to analyze consumer behavior thru information on consumer perception of scalp clinic and its actual situation as the necessity for scalp & hair care and hair loss care is growing. Accordingl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 21 2011 till Apr. 10 2011 with 800 respondents. Responses from total 759 respondents except for poorly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finally adopted for this study. SPSS 18.0 for Windows was used for statistical treatment of this survey in terms of frequency, percent, average, standard error, Chi-Squ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is research surveyed mainly college students and female smoking rate was measured more or less ( $p < 0.05$ ). Their average sleeping hours were 6.7 hours, less than average of 8 hours, which implies lack of sleep is serious. The reasons for this turned out to be psychological factors followed by lifestyle. For eating habits, the study showed that they took mainly spicy and instant food for daily 2.3 meals on average ( $p < 0.05$ ) and fast food twice a week ( $p < 0.05$ ), indicating the problem of nutritional unbalance. For exercise, they exercise 1.5 times per week for 31.8 minutes on average, which is quite insufficien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had stress and irregular lifestyle, showing that overall, they lived a life style related to hair loss ( $p < 0.05$ ). Personality, stress, menses were found to be in moderate condition and career path and employment issues were considered as main source of stress, reflecting today's social aspects in this study.

Secondly, in purchase behavior and perception survey, it was found that they usually gather information and buy hair care products in beauty shop

and use hair care products for the purpose of nourishment. Those who didn't use hair care products said that they don't use them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use them and they find it cumbersome to use them. They said they think effectiveness of products is most important factor. In addition, most of respondents were found to use general shampoo; shampoo hair once a day; rinse thoroughly; have a perm 1.74 times per year, hair dyeing 2.93 time per year; generally use treatment and hair conditioner.

Thirdly, for perception of scalp care procedures, most respondents said they didn't experience it. Those who experienced it said that they have it performed usually in beauty shop and its high cost is very burdensome. Besides, their opinion about the necessity for scalp care procedures and their intention to have it in the future was found to be moderate.

Fourthly, in basic knowledge about hair loss, their knowledge level was more than average and they selected cleanness and health condition as important for hair loss. High rate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correlation between hair loss and chemical procedures. Most respondents understood that hair loss is associated with lifestyle, self-care, professional cosmetic procedures, moderate exercise, particularly, most respondents selected stress as the biggest cause of hair loss.

Fifthly, in perception of hair loss, level of concern in hair loss was found to be relatively moderate and an estimated amount of daily hair loss was on average level. The dominating cause of hair loss was stress, and the problem with hair loss was said to be decrease of self image and self confidence. Proper way of shampooing and scalp care has high correlation with hair loss.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best measures to prevent hair loss are scalp care, sleep for rest, stress relief. Also, straightening out life style and behavior has a great impact on hair loss improvement.

Putting all these findings together, it can be said that perception of hair and scalp care products, hair loss products, product use behavior haven't yet been popularized. Also, it is indicated that high cost and lack of expertise are the biggest challenge to be solved. Consequently, in order to boost scalp and hair care industry which has great potential, marketing strategy combining internal development with promotion is required, including policy support for industrial-educational-research collaboration to popularize scalp and hair care and hair loss care procedures and to strengthen the related expertise,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 to improve high cost

Thu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direction of scalp and hair care and hair loss industry and program development by

analyzing perception of scalp and hair care and hair loss care.

<부록>

## Scalp & Hair Treatment (두피, 모발관리)와 Alopecia(탈모)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성의 Scalp and Hair Treatment(두피와 모발관리)와 Alopecia(탈모)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고 효율적인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한 문장도 빠짐없이 성의 있게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자료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해 본 연구의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3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피부비만관리석사과정 :  
이진희

지도교수 : 이은혜

---



8. 귀하의 평균 수면시간은 어떠하십니까? ( )시간

9. 귀하가 만일 불면상태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개만 선택)

- ① 신체적요인 (수면무호흡증, 두통 등)      ② 생활방식 (커피, 교대근무 등)  
③ 심리적요인 (스트레스, 우울증 등)      ④ 생활습관  
⑤ 수면제 남용      ⑥ 기타( )

10. 귀하의 두피, 모발관리(탈모)와 관련된 생활 습관에 주로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개만 선택)

- ① 스트레스      ② 불규칙적인 생활      ③ 누적된 피로  
④ 잦은 자외선 노출      ⑤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⑥ 외출시 잦은 모자 착용  
⑦ 잦은 헤어 제품 사용

11. 귀하는 운동을 하신다면 일주일에 몇 회 하십니까? 일주일 ( )회

12. 귀하는 운동을 하실 때 한번에 몇 분 정도의 운동을 하십니까?

( )분

13. 귀하는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개만 선택)

- ① 매우 마른편이다.      ② 조금 마른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비만인편이다.      ⑤ 매우 비만인편이다.

14. 귀하는 체중조절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Ⅲ. 다음은 응답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하세요.**

1. 귀하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받지 않는다                      ② 조금 받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받는다                      ⑤ 매우 받는다

2. 귀하의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비중은? (한개만 선택)

- ① 취업 및 진로                      ② 건강의 문제                      ③ 가정의 문제                      ④ 대인관계  
⑤ 외모의 문제                      ⑥ 성적 및 학업                      ⑦ 기타(                      )

3. 귀하의 성격은 어떠한 편입니까?

- ① 내향적이다                      ② 보통이다                      ③ 외향적이다

4. 귀하는 월경주기가 일정합니까? (한달 28-30일기준)

-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Ⅳ. 다음은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에 관한 구매행태 및 사용실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하세요.**

**\* 다음은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제품 구매에 대한 문항입니다.**

1. 귀하는 평상시 두피,모발 탈모관리 제품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한개만 선택)

- ① 화장품전문점                      ② 두피모발관리실 및 미용실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백화점  
⑤ 대형할인점                      ⑥ 인터넷                      ⑦ 기타(                      )

2. 귀하는 두피, 모발 및 탈모 관리제품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부터 얻고 계십니까? (한개만 선택)

- ① 인터넷                      ② TV등 언론매체                      ③ 약국, 병원 등 전문인  
④ 잡지 또는 신문              ⑤ 미용실, 두피모발관리실              ⑥ 주변 사람  
⑦ 기타 (                      )

3. 귀하는 두피, 모발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모발화장품을 사용하십니까?

- ① 반드시한다                      ② 가끔한다                      ③ 전혀 하지않는다                      ④ 기타(                      )

4. 귀하는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개만 선택)

- ① 두피, 모발의 재생              ② 영양의 공급                      ③ 탈모예방                      ④ 비듬의 완화  
⑤ 전혀 사용하지 않음              ⑥ 기타(                      )

5. 귀하가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개만 선택)

- ① 주변의 권유                      ② 광고                      ③ 제품의 효능, 효과  
④ 브랜드(메이커)                      ⑤ 기타(                      )

6. 귀하가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개만 선택)

- ① 효능, 효과가 없어서              ② 건강한 두피, 모발                      ③ 비싼 가격  
④ 제품에 대해 잘 몰라서              ⑤ 번거로운 사용                      ⑥ 기타(                      )

**\*다음은 두피모발 및 탈모제품 사용 및 행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하세요.**

7. 귀하는 머리를 얼마나 자주 감으십니까? ( )일, ( )회
8. 귀하는 하루 중 언제 샴푸를 하십니까? (한개만 선택)
- ① 아침에 일어난 후                      ② 오후에 자기전                      ③ 아침과 저녁에 각 한번씩  
④ 기타( )
9. 귀하가 사용 중인 샴푸 종류는 무엇입니까? (한개만 선택)
- ① 사용하지 않는다.                      ② 비듬 샴푸                      ③ 탈모샴푸  
④ 샴푸 린스 겸용                      ⑤ 일반 샴푸
10. 귀하는 샴푸 후 씻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떠하십니까? 약( )분 이내
11. 귀하는 샴푸 사용 후 물로 충분히 헹구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귀하는 샴푸 후 모발 건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한개만 선택)
- ① 자연건조                      ② 냉풍드라이                      ③ 온풍 드라이                      ④ 선풍기                      ⑤ 타올처리
13. 귀하가 일년에 평균적으로 하는 염색의 횟수는?    일년 평균 ( )회
14. 귀하가 일년에 평균적으로 하는 퍼머의 횟수는?    일년 평균 ( )회





26. 귀하께서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개만 선택)

- ① 현 상태에 만족                      ② 시간적인 부담                      ③ 경제적 부담  
④ 위치의 불편함                      ⑤ 효과에 대한 신뢰성부족        ⑥ 심리적인 불편함  
⑦ 청결의 문제                        ⑧ 기타 (    )

27. 귀하가 생각하는 두피, 탈모에 가장 좋은 관리방법은 무엇입니까?  
(한개만 선택)

- ① 청결한 샴푸                              ② 적당한 안정과 휴식        ③ 전문적인 관리  
④ 올바른 두피모발제품 사용        ⑤ 약물 복용 및 사용        ⑥ 알맞은 영양섭취

28. 귀하가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치 않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29. 귀하께서는 앞으로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를 받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V. 다음은 응답자의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에 관련 기초지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하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께서는 평소 생활 습관이 두피, 모발 및 탈모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건강상태가 두피, 모발 및 탈모 관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께서는 가정에서의 샴푸와 두피, 모발용 제품 사용이 두피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께서는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원만한 체력유지가 두피, 모발 및 탈모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께서는 스트레스가 두피, 모발 및 탈모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귀하께서는 두피모발관리실에서 두피, 모발 및 탈모관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께서는 펴, 염색 등의 화학시술이 두피, 모발 및 탈모 관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하께서는 두피의 청결문제가 탈모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IV. 탈모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V) 하세요.

1. 현재 귀하의 두피 상태는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개만 선택)

- ① 정상두피                      ② 건성두피                      ③ 지성(지루성 포함)두피  
④ 민감성두피                    ⑤ 복합성두피                    ⑥ 잘 모르겠다

2. 귀하의 두피에 대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한개만 선택)

- ① 탈모                      ② 기름진 두피                    ③ 가려움, 비듬                    ④ 흰머리나 새치  
⑤ 윤기없고 푸석한 모발      ⑥ 곱슬머리                    ⑦ 얇고 가늘고 힘없는 모발      ⑧ 머리숱 문제

3. 귀하가 느끼는 본인의 탈모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한개만 선택)

- ① 탈모가 전혀없다              ② 탈모가 약간 있다              ③ 탈모가 심하다  
④ 잘모르겠다                    ⑤ 기타 (                    )

4. 귀하의 두피, 모발 및 탈모에 대한 관심은?

- ① 아주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있다                    ⑤ 없다

5. 귀하는 본인의 경우 하루에 모발이 얼마나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개만 선택)

(일반인이 하루 동안 빠지는 모발의 수가 100개 이하이면 정상범위입니다.)

- ① 50~100개                    ② 100~150개                    ③ 150~200개                    ④ 200개 이상                    ⑤ 기타(                    )

6. 귀하의 가족 중 탈모인 분이 있습니까? (한개만 선택)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외할아버지                    ⑥ 외할머니                    ⑦ 자매, 형제                    ⑧ 기타(                    )

7. 귀하가 탈모가 있다면, 귀하의 탈모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개만 선택)

- ① 유전                      ② 스트레스                      ③ 영양부족                      ④ 두피질환  
⑤ 환경오염                      ⑥ 화학적인시술 (염색, 펴, 탈색 등)                      ⑦ 기타(                      )

8. 귀하가 탈모가 있다면, 귀하가 느끼시는 탈모와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한개만 선택)

- ① 자신감 결여                      ② 이성 (배우자)의 결점                      ③ 취업, 사교활동 등의 기회 결여  
④ 이미지 및 인상 악화                      ⑤ 기타(                      )

9. 귀하께서 생각하는 탈모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한개만 선택)

- ① 바른 세발 및 두피모발관리                      ② 스트레스의 해소                      ③ 탈모치료제  
④ 휴식과 수면                      ⑤ 알맞은 영양섭취                      ⑥ 금연 및 금주  
⑦ 기타(                      )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